



### 성공 U대회 시민들 나섰다

23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범시민지원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대회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빈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각계인사와 시민 2천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웁기고... 미루고... 절반은 空約 전략

## ■ MB정권 2년... 대선공약 어떻게 돼가나

이명박 대통령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들은 좀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사업들은 새 정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지원,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견제로 인해 상당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더라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광주, 노화연구소·상품거래소 '없던 일로' 전남, 영산강 살리기·F1 빼고 대부분 담보

◇광주시=광주연구개발특구(R&D특구) 지정을 비롯한 12개 현안사업이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관리하고 있는 광주시는 이들 공약 중 절반 정도가 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을 오는 2013년까지 서남권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동남권에 원자력의학원 분원을 설립한 뒤

결과를 보아 서남권 분원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쌀과 친환경 농산물, 금 선물 및 현금거래를 할 수 있는 동북아상품거래소를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지난해 말 타당성 용역까지 마무리됐음에도 '상품거래소가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국립노화종합연구소를 유치, 광주를 동북아 노화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공멸불로 전략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선공약 확정 전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부지를 매입했으며, 지난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노화종합연구소를 오송에 유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살리기사업은 지난해 말 죽산보 등 2개 보 설치 공사가 시작인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2월부터 저수지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또 영산강살리기사업은 지난해 말 죽산보 등 2개 보 설치 공사가 시작인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2월부터 저수지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민주주의전당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약 역시 추진주체인 '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서울로 임지를 정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R&D특구 지정, LED조명도시 조성, 가전로봇 특화육성,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등 도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면서 추진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전남의 경우 영산강살리기사업과 F1대회 지원 등에서는 어느정도 진척을 보인 반면 공동혁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무안공항의 중개물류 중심공항 육성 등은 사실상 담보 상태에 놓여있다.

영산강살리기사업은 지난해 말 죽산보 등 2개 보 설치 공사가 시작인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2월부터 저수지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고 있다. 2012년 여수엑스포와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도 표면적으로는 공약이 어느정도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행사 모두 지원 특별법이 통과됐고 정부측 지원으로 조직위원회가 꾸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F1대회의 경우 아직까지 공동조직위원장이 공식으로 남아있는 등 갈 길도 멀다.

특히 담보상태 놓인 공약에는 공동혁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J프로젝트가 있다. 나중에 들어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직격탄을 맞아 활성화가 의심스럽고, 영암·해남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J프로젝트는 6개 사업 지구중 삼호·구성 등 2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이 남지만 새만금개발계획에 밀려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홍행기·정필수기자 bungy@

## 광주 찾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

### “광주시의회 선거구 분할 유감 시민단체 요구 무공천은 안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3일 광주를 찾았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한 달도 안 돼 이뤄진 텃밭 방문이다. 하지만, 이날 광주행은 최근 경찰력까지 동원해 선거구 분할을 강행한 광주시의회 사태가 원칙없이 지지부진한 공천방식 결정과 맞물려 지역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선거구 분할은 불미스러운 일”=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시의회 4인 선거구 분할과 관련 “중앙당 차원에서 지시한 적은 없지만, 당 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표시할 정도로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경찰력까지 동원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엇이 다르냐’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아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4인 선거구제 분할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혁정당 등과 의 연대를 전제로 이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하지만 시민단체의 광역의원 무공천 요구와 관련해서는 “개혁정당 측과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무공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다만, 전국 의 시·도

당 위원장에게 지역에서 연대를 주문하고 있고, 연대는 자율적이고 중앙당에서 배제하거나 규제할 생각이 없다”면서 “연대 논의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성 및 주민 참여제도 강화=정 대표는 “비리로 단체장이 물러났을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한나라당 측에 제안하고 이를 합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앙과 지방의 예산 차이가 커 지방이 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수의 30% 수준까지 지방 몫으로 주는 방안을 민주당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현금”수사=정 대표는 “2006년 당시 한나라당 강제지역의 비리가 훨씬 심했는데도 전남 도당 일을 들춰내 민주당 위상을 추락시키고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측에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 기존 정책 나열... 한심한 용역

광주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광주지역과 인근의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으나 그 결과가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일반적인 자료 나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용역을 맡은 광주발전연구원(이하 광발연)은 지난 22일 최종용역 보고회를 갖고 다음달까지 보고서를

납품할 예정으로, 광주시는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광주대도시권 발전 구상’을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발연은 최종용역보고서에서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광주권 발전 비전으로 ‘혁신과 창조의 첨단·문화 메트로폴리탄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제3순환도로 등

인근지역과 연계된 기반시설 확충,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형성사업 등 전략산업 육성, 영산강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 매력 있는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광주대도시권 연합체 등 거버넌스 구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상당부분은 이미 광주시 각 실·과나 중앙정부 등에서 검토·추진중인 사업과 중복된다.

## ‘혁신도시 연계 광주권 발전 구상’ 광주시, 광발연에 수정·보완 요구

또 이 용역에 포함돼야 할 혁신도시 조성 이후 화순·나주 등 인근 지역과 광주의 향후 역할과 기능, 사회기반시설의 분산 및 집적 방향 등이 결여돼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의 목표는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구축 방안, 이전공공기관과 광주전략산업과의 연계협력 발전방안, 거버넌스의

효과적 구축 및 실행방안 등의 마련이었으나 실행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수정·보완해 보고서를 납품하도록 광발연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용역기간은 지난해 4월6일부터 다음달 3월2일까지로 용역비는 모두 1억6천880만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2010학년도 광주 바이블칼리지 신입생 모집

한국 신학교 최초 정규 커리큘럼에 영성자유를이념으로 개성!

### 마지막시대의 마지막 부르심!

● 영성자유를이념으로 개성! (영성, 자유, 사랑, 헌신, 헌신, 헌신)

● 한국 신학교 최초 정규 커리큘럼에 영성자유를이념으로 개성!

● 한국 신학교 최초 정규 커리큘럼에 영성자유를이념으로 개성!

구분	신용	세입자	입학비	장학금
신입생	100%	100%	100%	100%
재학생	100%	100%	100%	100%
졸업생	100%	100%	100%	100%

대한복음교총(총회장: 박종철 목사) | 대한신학교(총장: 박종철 목사) | 영성자유를이념으로 개성!

1. 영성자유를이념으로 개성! (영성, 자유, 사랑, 헌신, 헌신, 헌신)

2. 한국 신학교 최초 정규 커리큘럼에 영성자유를이념으로 개성!

3. 한국 신학교 최초 정규 커리큘럼에 영성자유를이념으로 개성!

**광주바이블칼리지**  
Kwangju Bible College